

세계화의 도전에 맞서는 독어독문학과의 이상과 그 실현

이 상 일

성균관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1. 도입—세계화의 외압

진 지한 표정으로 엄숙한 문체를 써서 ‘학과별 교육과제’를 논리정연하게 전개시킨다—는 흔한 수법은 이성적으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정서적으로도 반감을 유발시킨다.

독어독문학과는 인문과학으로서 인성(人性)의 폭을 넓히는 데 이바지하는 학문이며 어문학연구 분야를 담당한다. 그 교육과제는 학과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밑그림이다—이렇게 서술해 나가면 이미 대학의 연구실 냄새가 난다. 그런 딱딱한 분위기를 줄이며 정서적으로 독어독문학과의 방향을 선명하게 전달할 수는 없을까.

이미 1989년 6월에 『독어독문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 88-9-40)가 한국독어독문학회 소속 교수들에 의

해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그것을 요약하여 『대학교육』지 89년 5월호에 “독어독문학과의 현황과 발전방향”(이창복 교수)이 본란을 통해서 발표되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그 몇 년이라는 세월은 마음만 먹으면 문제의 방향을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작은 글을 쓰기 위하여 나는 『독어독문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를 자세히 검토하였으며, 이창복 교수의 소론을 참조하였고, 우수한 전국 대학의 독어독문학과 커리큘럼을 검토하였다.

결론은 간단하였다—그렇게 열심히 스테디했으며 연구결과를 공표했건만 개혁과 변화의 조짐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독어독문학과 교과과정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동시에 독어독문학과를 둘러싼 교육적 사회환경이랄까 문화환경 자체

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교육환경은 오히려 더 열악해졌으며 악화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비정한 환경 속에서 세계화의 외압은 전국 대학의 독어독문학과를 몰아 옥죄어 온다. 세계화라는 김영삼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앞서 지구촌 시대의 국제화에 상응하는 교육프로그램 모델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던 우리 독어독문학과들의 꿈은 무엇이며 그 꿈의 실현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다시 한번 '학과별 교육과제'란에서 독어독문학과가 거론될 때는 오늘의 세계화에 맞는 독어독문학과들의 위상을 마련하기 위한 충정이 스며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충정은 논리적이기보다 정서적이어야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나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2. 1만여 전공 재학생수의 의미

나는 1952년에 서울대학 문리대 독어독문학과에 입학했으며 1965년 이래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한국독어독문학회장을 역임했고 독일의 드라마·연극이 내 전공이다.

왜 내가 내 이야기를 꼬집어 내느냐 하면 내가 적어도 한국의 독어독문학과 출신자들 가운데서는 비교적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며, 내가 독어독문학과들의 교육과제에 대해서 품고 있는 짙은 회의와 불신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대학을 다닐 시절에도 독어독문학과 교과과정이 있었고 학과의 설치목적과 방향은 잡혀 있었을 것이다. 그 뒤 세월이 지나면서 대학의 발전과 더불어 독어독문학과들의 외적인,

양적인 발전은 눈이 부실 지경이다. 오늘 현재 전국의 독어독문학과는 60여 개이며 입학정원은 거의 3천 명이나 된다. 이들이 그대로 잘 졸업을 한다면 독어독문학과 전공자가 1년에 3천 명씩이나 배출된다는 것이다. 그런 사회적 수요가 과연 합당하거나 한 것인가.

그 가운데서 제대로 대학에서 독어독문학을 전공답게 공부해내는 학생수가 얼마나 되며, 그 전공을 살려서 직업으로서의 독어독문학과 살리며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교육과제나 교과과정이 그대로 그 학과를 이수하는 학생들의 인격 형성과 지적 함양, 그리고 직업에 1백 퍼센트 완벽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상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이 그대로 현실적인 직업과 연관되고 삶의 수단이 되며 그들의 사상과 사고방식, 삶의 결단 등에 그만큼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학과의 교육목표는 일단 현실과 상관없는 관념적인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독어독문학과는 독일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다룬다. 특히 문학 예술과 관련되어 있다. 『니벨룽겐의 반지』에 얽힌 게르만 신화, 그리고 『파우스트』의 괴테, 『윌리엄 텔』의 쉴러가 그들의 문학을 기본구조에서 의지했던 '언어·말'의 본향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위대한 예술과 과학, 그리고 경제와 정치가 철학과 음악의 문화사를 형성해 나간 재통일의 '도이치란트'를 알려면 일단은 독어독문학과들의 문을 두드려 봐야 한다.

나는 30년을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재직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학과의 교육과제에 대

하여 그 '꿈의 실현'을 소망하고 있다.

꿈의 실현은 우선 이상에 대하여 말해야 하고 그 다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독어독문학과에 대한 꿈의 실현은 아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꿈대로 일종의 백일몽이 되고 그 실현은 전혀 기대하지 않던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형상이 되어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독어독문학과와 꿈의 실현이 커리큘럼에 제시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각 대학들이 저마다 그들의 독어독문학과에 대한 꿈을 저마다의 특성으로 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양식이 대학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가 없으며, 심지어 그 원형이 되는 모델이 근본적으로 현실과 유리된 가운데 보수적이며 낡은 틀을 봉합한 비과학적인 과목들의 나열, 심지어는 인적 구성, 곧 교수진의 편의주의에서 배분된 교과과정을 신주단지 모시듯 후발대학 독어독문학과들이 복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적어도 한국독어독문학회와 중지를 모아 회원들이 참여한 모델교육과제와 교과과정을 통일시켰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거니와 애써 만든 1989년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물론 그 연구결과도 반드시 기대할 만한 것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를 각 대학 독어독문학과들이 차선책으로 수용하면서 그나마 중지를 살렸다는 뒷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만큼 독어독문학과와 교육과제와 그 꿈을 실현시킬 교과과정이 저마다 들쭉날쭉하다 못해 현실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소속된 성균관대학의 독어독문학과에서 30년을 지내면서 나는 많은 교육자, 정치가, 경제인 등 사회진출의 역군들을 보아 왔고 독어독문학 전공 학자들의 성장

또한 눈여겨 보고 있다.

그러나 나는 30년이 지나서 회의한다—내가 지켜온 이 학과가 한정된 학자들을 육성하는 기관이던가. 아니면 인문과학의 요람이라서 독어독문학을 주축으로 하는 교양인의 배출에 학과설립의 목적을 심분 발휘했던가. 결국은 전공인의 심도있는 양성인가. 아니면 문학교양 내지는 인문학의 기본과정 섭렵 정도로 수준을 정하고 전공으로서의 독어독문학은 보다 상급인 대학원의 석사과정, 박사과정으로 넘겨야 하는가.

문제는 전국 63개 대학의 독어독문학과 1만 1천여 재학생들이 모두 독어독문학 전공자가 되어서 사회로 진출할 때 그들을 수용할 직업의 확보가 보장되느냐가 핵심이라 할 것이다.

3. 이념과 현실의 커다란 낙차

다행이라 할까, 불행이라 할까. 우리 졸업생들은 극소수만이 그들의 전공을 살려 나가고 그 전공을 생계와 일치시킬 수 있다. 전공을 살려내도록 권장하고 독촉하고 조언하고 마침내 성적 평가라는 마지막 수단으로 우열을 가리지만, 그 평가마저 별 의미가 없어질 때 독어독문과 교수들은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이념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 것이다.

독어독문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도 그 지식의 축적과 활용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길이 없으므로 혹은 그 길이 너무 제한되어 있으므로 학과의 교육과제는 꿈으로 남고 그 꿈의 실현에서 튕겨져 나온 대다수의 학생들은

전공의 비중을 크게 평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학기 초마다 독일어 텍스트 한 권을 지정하여 그것을 완전히 외어 내도록 권장하고 독려한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도 좋고 『파우스트 1부』도 좋고, 누구 좋아하는 시집 한 권이라도 원문 그대로 외어 버리라고 독려한다. 교과과정상 내 전공에 맞는 드라마 교재를 외우도록 독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드라마·회극의 교재는 당연히 대사 중심이기 때문에 그대로 외워두면 독일어 회화로 활용되고 그 회극적 구성이 바로 문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시와 소설과 함께 독일어 회극 텍스트를 통해 문학세계의 근본에 접근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회극 텍스트의 문법적인 해부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독일어 기본실력도 드라마 텍스트 한 권의 암송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을 나는 누누이 강조한다.

독일어 기본실력을 갖추게 되고 대사를 통해 일상회화의 능력을 얻게 될 뿐 아니라 회극문학을 통해서 문학의 3대 장르를 깨우치게 되어 결국은 문학예술이라는 인문학의 근본정신을 다루게 되는 드라마·텍스트 외우기 교수 방식은 어쩌면 너무나 단순한 교육과제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단순한 교육과제가 나의 30년 교수생활에서 오직 한 번밖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해마다 20명 정도에서 요새는 주·야간 합해서 70명 가까운 독어독문학과 학생들이 신학기에 들어 나의 독일회극 강의 첫시간에 외우기 해설을 듣는다. 독일어 원서의 교재 한 권을 외우기만 하면 중간·기말 시험 성적에 상관없이 A학점을 주겠다, 극단적으로는 출석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재를 외워라,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일주일만 밤을 새우면 그까짓 책 한 권 외우지 못하랴!

나의 독어독문학 교육과제는 외우기 하나에 만 있는 것처럼 감언이설로 외우기 작전이 전개된다. 그리고 한 학기 내내 누군가 나의 기대를 채워주는 독어독문학과 학생이 나와 주기를 나는 고대한다.

중간시험기간이 지나고 기말시험이 끝나면 나의 기대는 가장 고조된다—성적평가가 저조하게 나오면 마지막 위기탈출을 위한 비상수단으로 교재 외우기가 단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성적이 과락이라도 나올 위험이 있으면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죽기 살기로 마지막 외우기 작전을 감행하는 젊은 만용도 남아 있겠거니—

그러나 간신히 28년 만에 나는 외국어 외우기가 특기라는, 외우는 것이 즐겁다는 기특한 학생의 자원으로 나의 기대를 채우게 되었고 다시 내 기대는 폐쇄회로에 갇히게 되었다. 그만큼 나의 외우기 작전이 실패한 까닭은 그 반대급부가 그만큼 성취동기를 자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나의 교육과제가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독어독문학과와 교육과제와 교과과정이 잘못된 것일까. 잘못되었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그 잘못은 시정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끝내 고쳐질 수 없는 잘못인가.

독일어 원서 교재 한 권을 외워 버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므로 그 어려운 작업을 그래도 마다 않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불태워 주는 것이 말하자면 성취동기가 된다.

독어독문학과와 교육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취동기다.

그것은 단순히 말하면 사회적 진출에서의 직업 획득 가능성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지적 갈증의 해소 가능성이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기는 지적 갈증의 해소과정이 바로 직업 획득 수단이 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대학의 사회적 기능이 고급인력 배출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고급인력은 전문가를 말한다. 대학은 전문가를 육성한다. 그런데 독어독문학과와 전문가는 독일어 실력양성과 독문학에 대한 지식수준의 함양을 목표로 삼는다. 독일어 실력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회화능력을 말하고 문법과 독일어 해독 실력을 뜻한다.

생각해 보면 그 정도는 굳이 대학의 교육과제로 내걸지 않아도 외국어 고등학교나 독일어 전문학원 같은 데서 집중적으로 훈련받거나 대학 어학연수원에서 과외로 수련할 수 있다.

4. 어학기능과 인문과학의 정신

그런 논리로 나가면 대학의 독어독문학과는 회화·어학실력 양성보다는 인문과학으로서의 독어·독문학에 접근하여 과학으로서의 어학, 학문으로서의 독일문학 지식 함양 및 그 체계화에 진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지적 훈련과정에서 얻어진 전문지식이 사회진출에서 그대로 직업과 직결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망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전국의 각 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생들의 몇 퍼센트가 독어독문학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가.

내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었던 5, 60년대만 하더라도 10명 졸업정원수에 기껏해서 2명 정

도가 교사로 나가고 또 1명 정도가 아르바이트로 출판사 편집부에서 눈치밥을 먹었으며 나머지는 바람처럼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렸었다. 아무도 책임질 어른이나 선배가 없었다. 경제적으로 살 만한 집안의 출신은 어쩌다 유학길에 오르고 나머지는 대학의 전문지식과 전혀 상관없는 공무원, 회사원, 군인 등 전문성과는 무관한 직업에 종사했다. 극단적으로는 야간 영업소의 악사로 자리잡은 경우도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학의 전문성과 사회적 진출이 반드시 일치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비극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맹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대학이 소수 정예의 지식인 또는 전문가 양성기관이었던 시대가 지나갔다는 점을 나는 강조하고 싶다.

이제는 대학도 대중교육기관 혹은 교양교육기관일 뿐이며 전문가도 평생을 걸쳐 교육받아야 하고, 따라서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대학이 기능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독어독문학과와 교육과제도 독어독문학 전공인 양성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교양인으로서의 독어독문학 전공자라는 식으로 수준을 내리도록 된다는 것이다.

대학 4년 동안 교양으로서의 독어독문학을 공부하고 보다 본격적인 연구와 지식탐구는 대학원 과정으로 넘긴다면, 대학의 독어독문학 교육과제는 지금같이 심각하고 그래서 편협되고 일면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교양으로서의 독어독문학 교육과제를 전공필수의, 사생결단의 교육과제로 지정함으로써 대학생활 자체가 심각하고 중압적이며, 그래서 무미하고 생기 없는 강압의 장으로 바뀌게 된다면 도대체 성취동기 자체가 발휘될 수 없다.

어학실력이라는 회화·독해 위주의 기능적 능력함양은 대학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가능하다. 외국어 중·고교에서의 훈련으로 어학기능 능력은 대학에서보다 더 일찍 속성으로 배양된다. 그렇다면 보다 고급으로 독어독문학을 체계화시키고 지적 탐구심을 자극하면서 젊은 지성의 성취동기를 유발시킬 것은 외국어라는 독일어 기능 그 자체보다 인문과학적인 학문적·문학적 지식탐구에 대한 자극과 훈련방법의 모색이다. 그리고 지적 탐구심을 계속 일깨워 나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직업으로서 생계와 직결되는 것이 가장 보람있는 삶의 방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교직 자리가 가장 합당하다는 결론이 난다. 독어독문학을 가르치며 스스로 공부하는 것으로 생계가 유지되는 직업이 교직이다. 그러나 그 교직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교직을 위한 대학원 진학, 유학 등을 별도로 치고 독일어를 필요로 하는 문화기관, 회사 등으로 유출되는 졸업생들은 전공인 독어독문학보다 기능으로서의 회화 및 독해력 함양이 우선된다. 그보다 더 넓은 영역으로 유출되는 독어독문학과 출신들은 전공인 독어독문학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독어독문학이라는 인문과학의 정신만 가지고 사회적 수요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대학 4년 동안 독어독문학이라는 인문과학의 방법과 사물을 보는 해석능력 그리고 사안의 핵심에 접근하는 인문과학의 정신을 배우고 마침내 사회에 진출해서는 독어독문학과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분야에서 직업을 얻고 인문과학의 정신이라는 <관념>만 먹고 살게 되는 독어독문학과 출신자들 대부분은 마침내 독어독문학과 교육과제를 믿지 않게 된다.

학과의 교육과제가 불신당한다는 사실은 그 학과에 종사하는 교수로서는 여간 가슴 쓰린 것이 아니다. 우수한 학과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대개 그 학과의 교육과제에 맞추어 정상대로 발전하고 그 과제에 맞는 직업과 연계되어 반드시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생계의 길과 전공을 일치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부류는 극히 제한적이고 어쩌면 행운아들이라 할 수 있다.

나머지 독어독문학과 전공자들은 입학과 함께 회의와 번민과 방황의 나날을 보낸다. 만약 그 길이 자기선택에 의한 결단이라면 우선 생계와 연관시킬 것 없이 짧은 날 이념에 불타는 시절에 인문과학의 길에서 학문과 문학의 정신을 배우고 삶에 대한 회의와 번민과 방황의 나날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적순위에 의해 타율적으로 배정된 학과라면 그 회의와 번민과 방황은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성적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에 맞추어서 선택하게 된 독어독문학과. 그러면 그 학과에 대한 교육과제라든가 교과과정 자체가 낮선 것이 된다. 그 낮선 독어독문학이 나의 장래에 대해서 어떤 보장을 해 줄 수 있는가. 대부분의 독어독문학과 신입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한번쯤 그런 회의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 회의는 방황으로 그리고 그 방황은 독어독문학과라는 교육과제의 꿈과 이상마저 냉소하게 되고 그런 냉소주의는 마침내 삶의 냉소주의와 맞닿게 될 것이다.

5. 결 론 : 소수정예화의 길

독어독문학과와 교육과제는 이제 세계화로

집약된다.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한 학문 자체가 원천적으로 세계화와 지구촌 국제화를 전제하지 않는 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지면이 없으므로 결론부터 말한다면 현실과 괴리된 독어독문학과는 전공보다 일반교양으로서의 독어독문학과로, 국제문화계열학과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어 문법이나 일상회화같이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부분은 굳이 대학에서 전공과목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그런 기능은 어학연수원에서 맡으면 된다.

나의 이런 주장은 독어독문학과 전공담당 교수들의 직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을 살 위험성은 다분히 있다. 그러나 교수들이 그들이 가르친 학생들의 실직·고급 룸펜화를 막으려면 소수정예화로 가야한다는 사실에 일부는 동조해 줄 것이다. 소수정예화로 대학의 독어독문학과가 인문학의 일부를 담당하는 정신과학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기능주의 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가 없다.

인문과학은 기능이 아니므로 그 정신적 가치를 독어독문학이라는 학문영역에서 차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교수와 학생들이 상아탑 속에서 연구의 땀을 흘려야 한다. 잃어버린 상아탑에 대한 탈환작전이 우선 교육과제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무엇 때문에 연간 3천 명의 독어독문학 전공자가 필요한가. 독일시, 독일소설, 독일희곡의 장르적 구분의 고집보다 넓은 영역으로 넘나들 수 있는 학제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독어독문학을 위한 독일정신사, 문화사, 동서통일론 등 <독일학> 계열의 교양과목 설치가 학과증설이나 학생증원 문제보다 훨씬 선결과제라는 사실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런 개혁의 몸부림이 독어독문학과외의 세계화를 위하여 교육과제 자체에 반영되지 않으면 독어독문학과는 지나간 연대의 공룡처럼 아니면 프랑켄슈타인의 몰골로 남을지 모른다. ■

이상일/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스위스 취리히 대학에서 수학한 후,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극예술협회 상임위원과 한국독어독문학회장, 연극학회, 브레히트학회, 성균관대 도서관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 『한국사상의 원류』, 『한국인의 고향 놀이』, 『축제와 미당극』 등이 있고, 논문으로 “니힐리즘의 전개”, “곳의 연극적 기능”, “민간심상의 형성력”, “브레히트론” 외 다수를 발표했다.